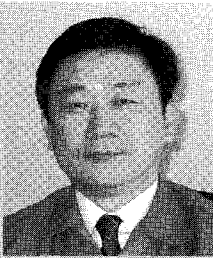


연륜과 축적된 경험 통해 일류기업 도약

끊임없는 기술 투자 및 연구로 발전 거듭



박 봉 준
(주)대륙제관 대표이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현재, 오래된 전통과 임직원들의 애사심을 자랑하며 거듭된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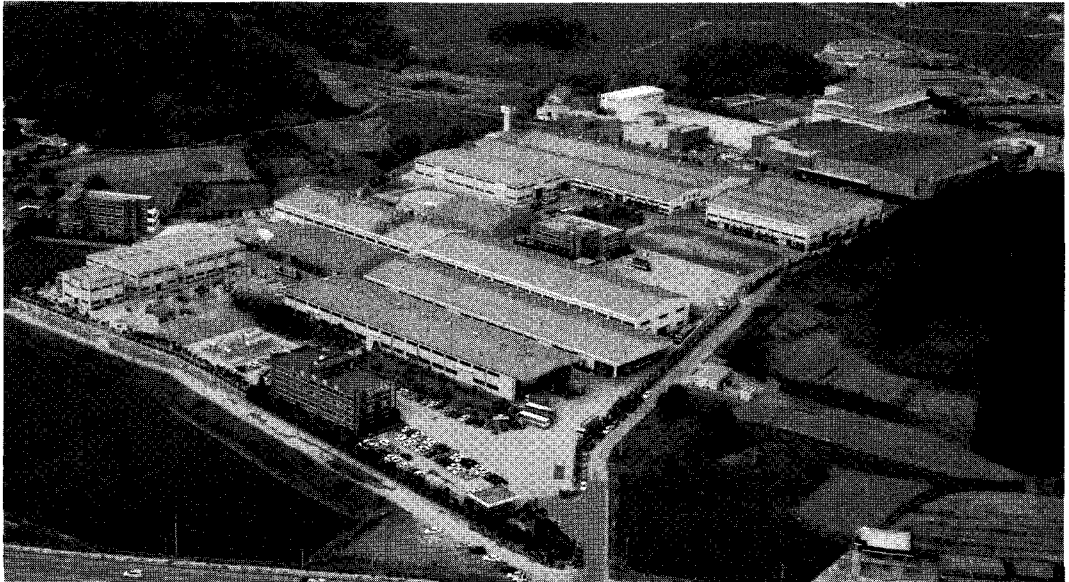
1950년대 후반 전쟁 폐허의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관업에 첫발을 내딛은 (주)대륙제관.

현재 (주)대륙제관은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술한 비바람을 헤치고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대륙제관은 1958년 대륙제관 공업사로 시작, 90년대말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23,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대단위 공장을 완공, 각종 금속 포장용기와 부탄가스 충전제품을 비롯해 자체 기술



▲ (주)대륙제관 생산제품



▲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주)대륙제관 공장전경

로 만든 충전설비를 제조해 왔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제관업계 선도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주)대륙제관의 총 지휘자인 박봉준 대표이사는 "저희 회사는 제관업계로서는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고객만족을 꾀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라며 회사에 대해 소개했다.

(주)대륙제관은 본사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 사무소와 기술연구소 및 일반관, 에어졸 부문 등이 있는 충남 아산 공장에서 직원 및 연구실 인원 2백92여명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대륙제관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기술연구소는 제관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보유한 연구소로서 에어졸, 일반관 등 170개의 특허 및 의장과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개발품으로는 용기 주입

구(마개용) 스파우트, 부탄용기의 폭발방지 구조, $\phi 214(N)$ Can 개발 등 (주)대륙제관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한 대륙제관의 스파우트는 20l Pail을 비롯하여 1, 4, 6, 18l 각관 및 기타 여러 관종의 마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물이나 관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스파우트가 선택되어진다.

국내 일반관용 마개의 발전 흐름을 대륙제관이 주도하고

Dae Ryuk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주)대륙제관은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부탄가스 용기가 소비자의 오사용과 가스렌지 결합으로 잦은 용기 폭발 사고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91년부터 2년여의 개발기간과 총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별 용기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데 성공했다.

부탄 용기 폭발 방지 구조인 RVR(Rim Vent Release) 시스템은 용기상판에 일정하게 방사상으로 36개(12조)의 칼자국을 내어 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용기가 변형되면 칼자국 중 일부가 갈라져 용기의 내부압력을 완화시켜 폭발을 방지한다.

(주)대륙제관의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용기의 폭발방지 구조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개발됐으나 현재 실용

화 된 것은 RVR 시스템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에는 부탄캔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CRV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용 우레탄폼용 에어줄 용기를 $\phi 300$ 에서 $\phi 214(N)$ 관중으로 크기를 줄이는데 성공, 우레탄폼용 용기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속용기에 은박스티커 공기흡입구를 부착, 내용물 배출시 출렁거림을 해결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켰다.

부친에 이어 (주)대륙제관을 맡은 2세 경영인인 박 사장은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온 회사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술적인 면에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시대에 부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의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 노력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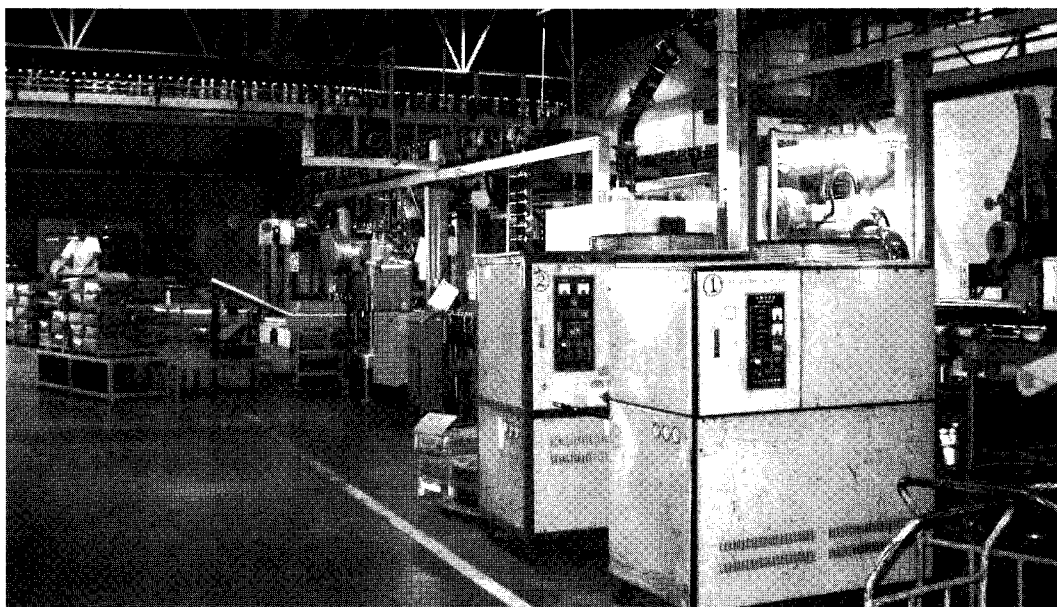
(주)대륙제관은 지난 2002년 가스안전촉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천만불수출의 탑 수상 및 대통령 표창상을 거머쥐게 됐다.

뿐만 아니라 ‘UL’ 마크, ‘JIA’ 인증, ‘KS’ 표시 획득, ‘GS’ 마크 획득, ISO 9001 인증 등 품질 인증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SK, LG 등 5대 정유사를 비롯해 페인트 식품회사 등이 주 고객인 (주)대륙제관은 다른 기업가 마찬가지로 IMF 당시 위기를 맞이했다.

“구조조정 및 원가 절감 등으로 힘든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직원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륙제관은 있을 수 없었겠지요.”

당시 대륙제관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힘을 합쳤다.



▲ 에어졸 생산현황

45년이란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회사의 대한 애사심은 (주)대륙제관의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국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박 사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살얼음을 걷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 가격이 원자재값 인상분의 절반 수준도 반영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가격 조절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기업의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장산업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박 사장은 특히 생활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관업계에서 종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탄가스의 경우 용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안전과 내용물 보호, 이 두가지 일을 한치의 착오 없이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죠”

앞으로 (주)대륙제관은 무스방향제 살충제 등 생활용품 용기겐 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졸 부문을 비롯해 부가가치 있는 제품부문에 수출을 강화하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오랜 전통과 경험, 과감한 투자 이 세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인 (주)대륙제관의 끝없는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본다. 

이한일 기자